

성공적인 PPM사업의 정착을 꿈꾸며...

글 김희중(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본부장)

아침 가방을 꾸리며 오늘은 무슨 말로 환자들과의 대화를 이어갈까 이것저것 주제를 생각해 본다. 날씨 이야기를 해볼까? 봄꽃이 한창이니 봄나들이 이야기를 해 볼까! 환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진심어린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짜증내는 환자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다가올 것을 믿고 기다려보리라 마음을 다잡는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TB도우미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환자관리의 어려움 보다는 병의원에서의 이해와 협조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점이다. PPM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의원의 적극적인 동참의식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아마도 전국에서 수고하고 있는 보건소 파견 TB도우미들의 동일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하며 내가 겪은 병의원 접촉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PPM사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리나케 보건소로 출근하여 PC를 켜본다. 직

접 신고한 병원이 있나 확인해보지만 오늘도 없다. 팩스로 신고된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 기재사항이 빠진 것들이 여럿 있다. 물론 동의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 질병코드도 잘못 기재되어 있다. 신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번호 등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확인하고, 신고담당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그 내용을 KTBS에 입력한다. 오늘 신고한 병원은 내가 맡고 있는 관내에서 협조가 가장 잘 되고 신고도 가장 많은 대학병원이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주치의도 상담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이 정도 협조를 얻어낸 것은 성공적이며 다른 병의원들도 이만큼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는다.

맨 처음 홍보물을 가지고 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는 너무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서 앞이 캄캄했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때 해외 출장을 가고 안 계셨던 병원 부원장이시며 제1호 흡기내과 과장님이 돌아오신 후 다시 방문해

보니, 이 분은 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원이시고 이미 TB도우미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었다. '바로 이거야!' 속으로 외치면서 우리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인 동의서 획득문제와 의무기록지 열람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부원장님께서서는 즉시 의무기록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 소개를 해주셨고, 이후 수월하게 의무기록실을 출입하게 되었다. 그 후에 보건소 공문으로 해당 환자들의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하여 누적되어 있던 환자정보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 정보들이 환자를 상담하고 설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다. 20여 년 전에 의무기록사 자격증을 따 두었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 장롱 속에 잠자던 자격증에 찢힌 입맞춤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었지만 동의서를 받는 것은 역시 그 병원에서도 어려운지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서 알게 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동의를 구하고 있다. 어떤 분은 반갑게, 또 어떤 분은 내키지 않아 하지만 일단 접촉엔 성공한다. 이렇게 1/4분기 내에 KTBS에 신고한 환자는 7개 병원에서 총 50명이었는데 이런저런 방법들을 동원하여 도우미 등록 환자는 30명으로 60% 실적을 확보하였다.

내가 PPM요원으로 파견되어 처음 시작한 일은 관내 병원 현황을 파악하여 내과, 소아과를 중심으로

결핵환자 진료가 가능한 70여 곳의 병의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그리고 큰 병원부터 차례로 찾아다니며 TB도우미 사업을 홍보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신고가 접수된 병의원은 7개에 불과하다. 전체 비율로 보면 10% 미만이다.

실제로 결핵환자를 진단하고 직접 치료하는 병의원은 극히 일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개인 병의원에서는 결핵환자 진단과 투약에 어려움이 있어 대학병원이나 협회 복잡자의원으로 환자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신고하고 있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PPM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좀 더 확실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단 병원 담당자들은 결핵발생 신고 자체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재 방법을 자세히 모른다. 또한 환자에게 도우미사업을 소개하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유출로 여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올해는 TB도우미들이 전국적으로 활동하면서 각 병의원에 홍보하는 시기이지만 PPM요원들의 역량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병의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TB도우미들을 통해서 결핵완치율을 높여 결핵퇴치 2030 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 등을 통한 좀 더 확실한 방법들을 강구해 줄 것을 바란다. †